

진리를 온전히 앎

1/29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8:12, 32

12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입니다.”

32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일 1:5-6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6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갖는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요 1:4, 7, 9

4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7 그는 증언하러 왔다. 그는 그 빛에 관해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려고 하였다.

9 참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고 있다.

요 3:21

21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오는데, 이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요 17:17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타고난 생명의 노력으로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힘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틀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다. 이 틀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 곧 절대적으로 진리에 따른 생활이다. 진리는 빛의 비춤, 곧 신성한 빛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요일 1:5),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복음서들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활의 모든 방면이 하나님의 표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표현하셨다. ... 진리 곧 실재에 따른 예수님의 이러한 생활이 본이며, 하나님은 이 본 안에 우리를 두셨다. 이 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웠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실재에 따라, 즉 주 예수님의 생활에 따라 그리스도를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생활은 하나님의 진리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생활이 빛의 비춤이다. 빛의 비춤은 진리이고, 진리는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활 안에 실재가 있다. 주 예수님께서 세우신 본의 본질이 진리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생활의 본질이 실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46, 43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더 많은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신약의 계시에 따르면, 진리는 빛의 산물이다. 무엇이 교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빛이 없는 지식은 교리이다. 빛이 가득한 지식은 진리이다. 신학 박사들에게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빛은 없을 수 있다. 《라이프 스타디》가 여러분에게 단지 교리가 될 수도 있고 진리가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우리가 단지 지식만을 얻었는지 아니면 지식에 빛이 더해진 진리를 얻었는지에 있다. 빛이 없다면 지식은 그저 교리에 불과하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교리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이 신학교나 신학 대학원에 가서 다량의 지식을 얻을지라도 빛은 얻지 못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빛은 주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결코 그분 자신이 지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주님은 그분 자신을 빛(요 8:12)과 실재(14:6)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성경 앞으로 나아오고 아침 부흥을 할지라도 우리가 얻은 것은 그저 빛이 없는 지식에 불과할 수 있다. 만일 우리의 지식에 주님의 임재가 연합되도록 한다면 그 지식은 이제 진리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빛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성경이 도움이 되고, 《라이프 스타디》도 도움이 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교리를 얻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빛이 있는 참된 지식을 얻도록 돕는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 곧 실재를 갖는다. 인도하는 이들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인도하는 이들 자신이 앞장서야 한다. 인도하는 이들이 주님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열정적이기를 기대한다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그저 하나의 교리나 가르침이 되어 조금의 충격력도 갖지 못할 것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1권, 장로들과의 실제적인 담화, 5장, 91쪽)

생명 주시는 영은 갖지 않은 채 다른 많은 것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다. 가톨릭교 안에 여러 이야기와 어떤 미신적인 관습들이 존재하지만, 이 모든 것에 생명 주시는 영이 계시지 않는다. 개신교 안에는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개신교 안에도 역시 실재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무엇인가? 주님의 회복의 목표는 성경에 계시된 항목들의 실재와 생명과 생생함과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 생명 주시는 영계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리와 이야기의 생명 맥박과 실재와 영향력과 충격력이다.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9, 1287-128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 누가복음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74; 베드로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10

1/30 화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딤후 4:6

6 그대가 이러한 것들을 형제들 앞에 제시한다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긴밀히 따른 좋은 가르침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입니다.

딤후 2:15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 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잠 23:23

23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명철을 사라.

요이 1-4

1 장로인 나는 선택받은 부인과 부인의 자녀들에게 편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나쁜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2 우리 안에 거하고 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을 진리를 위해서입니다.

3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안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4 나는 부인의 자녀들 가운데 몇 사람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라이프 스타디》를 단지 읽기만 하고 연구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자양분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일종의 영감에 그칠 것이다. 영감은 대기 속의 수증기와 같다. 우리가 읽은 것이 우리 존재 안에서 진리가 될 때, 이러한 자양분은 영원히 남는다. ...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해야 한다. 진리가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지성을 통해서이다. 그럴때 그것은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 있게 된다. 만일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리는 여러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진리는 여러분의 지성, 이해력을 통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온다. 또한 진리가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들어오면, 그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자양분이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은 축적된 진리를 갖게 되고, 지속적인 영양 공급을 받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른 이들에게 진리를 제시하는 법을 알게 되어, 단지 영감이나 감동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진리로 조성되게 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2권, 장로 훈련, 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9장, 386-38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여러 해에 걸친 우리의 경험에 근거하여, 우리는 성도들을 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수많은 성도가 오랜 세월동안 우리와 함께 집회를 해 왔지만, 여전히 그들은 주님의 회복의 기본적이고 내재적인 요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 그들의 존재 안으로 참되게 일해 넣어지고 조성된 신성한 계시의 내재적인 요소가 그다지 많지 않다. ... 우리 가운데조차도 어떤 진리의 항목들을 합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위트니스리 전집, 1984년, 2권, 장로 훈련, 3권: 이상을 실행하는 길, 9장, 379-380 쪽)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벽과 그 기초의 기능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성취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 오늘날 하나님의 신성은 조롱당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분의 자녀들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가족이며,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고 믿는 것은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위대한 진리에 반대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2권, 새 예루살렘의 해석을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적용함, 3장, 151 쪽)

디모데전서 2 장 4 절 후반절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and)’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만을 보고 그분께서 또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은 간과할 수 있다. 구원받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 참여하는 시작 단계이다. 만일 사람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지 않았다면 교회 건축을 위해 유용하지 않다. 또한 우리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하는 다른 이유는 다른 이들도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온전히 앎’이라는 표현은 단지 이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체험을 포괄한다. 설탕이 달다는 사실을 실지로 알려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아야 한다. 단맛을 맛본 후에 우리는 설탕이 달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 누구도 설탕이 달지 않다고 우리를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이 단지 ‘듣고 말만 하는’ 진리를 알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누군가가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말해도 설득당하지 않을 정도까지 진리를 참되게 알거나 체험하지 못했다. 모든 사람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때까지 진리를 항목별로 그리고 요점별로 알아야 하고 또한 체험적으로 알아야 한다. (중고등부 공과, 5 단계, 교회, 23 과, 36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중고등부 공과, 5 단계, 교회, 23 과

1/3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4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딤후 1:1-3

1 하나님의 노예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믿음에 따라, 그리고 경건에 따른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라

2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3 그런데 그분은 적절한 때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를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나타내셨습니다.

요삼 3-4

3 형제들이 와서, 그대가 진리를 붙잡고 심지어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증언해 주니, 나는 대단히 기뻐합니다.

4 나는 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요이 7-8

7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미혹시키는 사람이고 적그리스도입니다.

8 여러분은 자신을 지켜서, 우리가 일해 놓은 것들을 잃지 말고 완전한 보상을 받으도록 하십시오.

딤후 3:15

15 혹시 내가 늦어지게 되더라도, 그대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입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믿음에 따른 것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온전한 지식에 따른 것이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받는 것이다. 진리의 온전한 지식이란 진리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말한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영적이고 신성한 모든 것의 실재를 완전히 인정하고 감상하는 것이다. 사도 직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실재를 이렇게 이해하고 감상하는 것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 (딤후 1:1 각주 4)

오늘의 읽을 말씀

디모데전후서에서 바울은 믿는 이들이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러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딤후 2:4, 4:3, 딤후 2:25, 3:7). 디모데전서 2 장 3 절과 4 절은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한다. 진리는 그것을 해방하고 공급한 사도들의 글 속에 담겨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믿는 이들은 아직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지 못했다. 그러므로 진리 면에서의 문제는 사도들 편에 있지 않고 믿는 이들 편에 있다.

교회의 타락은 진리를 소홀히 한 데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조직화된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이가 어둠 속에 있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진리에 대한 합당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비록 바울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선택하신 열두사도 중 한 명은 아니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많은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러한 것들이 후에 바울의 열네 서신서에 기록되었으며, 이 기록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신약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골 1:25).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교리는 복음서들에 있는 주님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신약 스물일곱 권 전체에 제시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제시하는 기술을 발전시킴, 1 장, 156-157 쪽)

오늘날 주님의 회복은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신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진리를 배운다. 디모데전서 2 장 4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한다. 모든 믿는 이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날마다 성경에 시간을 들임으로써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르는 것은

가능하다. 모든 믿는 이들 각자에게는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역량이 있다.

성경 육십육 권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지극히 심오하다. 성경의 내재적인 의미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수 세기에 걸쳐 신학의 다양한 학파가 출현했고, 수많은 성경 학교와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성경 강해서가 쓰였다. 대부분의 성경 학교와 신학교에서 학생들은 신학과 역사와 지리 그리고 성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운다. 오늘날 기독교 신학에는 몇 가지 주류 학파가 있다. 이 모든 학파는 성경을 연구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서 나왔는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취한 방식은 성경의 영적 의미에 근거하여 말씀을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과 상충한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디모데전후서에서 바울은 모든 믿는 이가 진리를 온전히 아는 데 이를 수 있도록 교회들에게 건강한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에 따라 성경을 연구하여 성도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합당한 방식으로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4년, 1권, 주님의 증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진리 안에서 건축되고 생명 안에서 자람, 82-8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1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83년, 3권, 진리를 온전히 알기를 힘쓰고 진리를 제시하는 기술을 발전시킴, 1장;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 1장

2/1 목요일

아침의 누림

롬 1:7

7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부름받은 성도들이 된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엡 4:6

6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모든 사람을 통과하여 계시고, 모든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요 실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가지 못합니다.

요삼 7-8

7 왜냐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나갔고, 이방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어, 진리에 동역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본적인 계시에는 두 방면, 즉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있다. 성경에 있는 진리들에는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이 둘 다 있다. ...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오직 객관적인 방면에서만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진리의 객관적인 방면과 주관적인 방면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하다. 여러 세기 동안 간교한 사탄은 성도들이 객관적인 방면에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은 계속하도록 허용했지만, 주관적인 방면에서는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여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막았다. 사탄이 이와 같이 간교하게 일해 온 것은, 일단 성도들이 진리의 주관적인 방면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에 관하여 객관적인 진리들과 주관적인 진리들이 있다. 객관적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창 1:1, 26), 구속자(시 78:35), 구주(딤후 2:3), 목자(시 23:1), 주님(눅 1:32), 주재자(행 4:24)이다. 이 모든 보배로운 목들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객관적인 분이신데,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 밖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시다(롬 1:7).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으로 넣어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주관적인 분이시다. 물질적으로 우리 몸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생명이 있지만, 그 아버지의 인격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러나 영적 실재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은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하나님 그분 자신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엡 4:6).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성경에 있는 진리들의 주관적인 방면, 1장, 87, 89-9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만일 우리가 객관적인 교리들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관적인 방면을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그분께서 교회를 통하여 표현되시는 것이다. 객관적인 진리들은 주관적인 진리들을 위한 것이고,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실지적인 교회생활이 없다. 실지적인 교회생활은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한 결과이다. 우리가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할 때 교회가 자연히 산출된다.

더욱이 모든 주관적인 진리들은 그 영과 생명에 연결되어 있다. 그 영과 생명은 주관적인 진리들의 실질이다. 만일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주관적인 진리들도 없을 것이다. 객관적인 교리들은 문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관적인 진리들은 문자가 아닌 그 영과 생명으로 조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 영과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주관적인 진리도 갖지 못한다. 따라서 교회는 바로 그 영과 생명에 의해서 산출된다. 그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때, 우리는 주관적인 진리들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교회생활을 갖게 된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2장, 159-160 쪽)

주관적인 진리들은 교회의 건축을 위해 필요하다. 그것은 교회가 단지 사람들의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 곧 그리스도의 몸(엡 1:22-23, 골 1:18)이기 때문이다.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유기적이며, 생명에 속한 것이다.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는 문제가 아니며, 또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도록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문제만도 아니다. 교회가 주님을 믿음으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정의의 수준에서 멈춘다면 교회의 참된 의미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교회는 깨끗하게 되고 용서받은 믿는 이들의 무리 그 이상의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생명, 곧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 그분 자신인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요 1:4, 11:25, 14:6)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단지 하나의 조직체를 세우거나 어떤 조직을 이루기 위해 함께 모인 한 무리의 사람들에 불과할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성경에 있는 진리들의 주관적인 방면, 2장, 101-10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성경에 있는 진리들의 주관적인 방면, 1-3 장

2/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엡 3:16-19

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17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18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 1:12-14

12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
 13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롬 8:2-4

2 왜냐하면 생명의 영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3 율법이 육체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죄와 관련하여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시어, 그 육체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판결 하심으로써
 4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에 관한 책이다. 요한복음 1 장 12 절은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분을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즉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을 내적으로, 곧 자신 안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위를 주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다.”(요 1:13)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무언가가 그들의 존재 안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체험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성경에 있는 진리들의 주관적인 방면, 2장, 105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에베소서 3 장 16 절부터 19 절까지는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능력으로 여러분을 속사람에 이르도록 강하게 해 주시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시게 하시며,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게 하시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온 존재 안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도록 허락해 드리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곧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에 그분의 거처를 정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얼마나 주관적인 체험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하게 될 정도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처를 정하신 뒤에는, 충만하게 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성경에 있는 진리들의 주관적인 방면, 2장, 118-119쪽)

성경 안에는 참으로 주관적인 관점이 존재한다. 이 주관적인 관점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해 준다. 오히려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의 숨과 생수와 자양분이 풍부한 음식이 되신다. ... 그분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누림이 되기를 갈망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은 더욱더 기뻐하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과 우리는 한 영이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을 갖고 있다.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은 그분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과 정확히 똑같다. ...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구원이다. 그분의 구원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일해 넣으시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넣으시어, 우리를 그분과 한 영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과 체험들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진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회복하기를 갈망하시는 것이다. ... 우리에게는 신성한 요소가 우리 온 존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에 대한 충분한 체험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신진대사적이며 유기적인 변화가 매우 적다. 우리는 외적으로 행동을 개선하려고 하는 관념에 쉽게 빠진다. 우리는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하며, 교회생활을 하고, 심지어 그분을 섬기는 봉사에 참여한다. 이때 우리는 빈번히 자신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개선하거나 바꾸려고 한다. 우리의 의도는 합당하고 순수하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성도로서 합당한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살고 교회 안에서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발상이 여전히 인간적인 관념들이고 윤리적인 맛을 지닌 종교적인 사상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일부가 되도록, 육체 되심과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거쳐 우리와 연결되신 분이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1장, 157쪽, 7장, 243-244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권,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1-3, 7장

2/3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2,15

2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나에게 들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15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곧게 잘라 내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자신을 드리도록 힘쓰십시오.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요 14:20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요 18:37

37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그렇다면 그대가 왕이란 말이요?”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왕이라고 총독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또한 그것을 위해 세상에 왔습니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듣습니다.”

계 21:2,10-11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10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11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사람들을 접촉할 때 진리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고 나가야 한다(딤후 2:4). 성경 안의 신성한 진리들로 적셔지려면 우리는 사역의 출판물들을 침실과 거실과 식탁과 부엌 등과 같은 집 안 곳곳에 두고 그것들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사역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어 진리로 조성되어야 한다(비교 행 2:42).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이러한 귀한 진리들이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이다(딤후 2:2, 15). 우리는 피상적인 복음을 들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높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삼일 하나님이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생각이 깊으며,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한다. 피상적인 복음은 그 초점이 지옥에서 천당으로 가는 구원에 맞추어져 있는데, 이러한 복음으로는 사람들이 매혹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러한 복음을 들어 보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인생의비밀> 이라는 소책자가 복음 전파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소책자가 효과적인 이유는 그 주제가 오늘날 생각이 깊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필요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87년, 1 권, 영문판, 7-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십 대를 포함하여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고 찾기를 원한다. 성공적인 경력을 쌓은 사람들도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알기를 갈망한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높은 복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나 윤리나 철학에 익숙할지 모르지만, 그들 대부분은 성경 안에 있는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삼일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하나님의 분배와 관련된 깊은 진리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릇으로 창조되었고, 그 목적은 하나님을 그들의 내용으로 받아들여 그분께서 그들 안에 사시기 위한 것(창 1:26, 롬 9:21, 23, 고후 4:7, 엡 3:17)이라고 말해 줄 수 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시한 높은 진리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사로잡았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회복역 성경>의 각주를 사용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매혹할 수 있을 것이다.(위트니스 리 전집, 1987년, 1 권, 영문판, 8 쪽)

우리는 항상 사람들을 한 명씩 접촉하는 것을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무리에게 전파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번에 오십 명의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오십 명 가운데 한 사람도 얻지 못할 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람들을 한 명씩 접촉하는 것이다.

우리는 높은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깊고 높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낡은 관념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더 깊은 진리들을 듣고 싶어 한다.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도 사람들에게 높은 복음을 말할 수 있다. 심지어 마태복음 1장의 첫 번째 절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가능하다. 1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요점에서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과 아브라함에 관해 말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주님께서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요점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높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장비되도록, 출간된 사역의 말씀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들을 연구해야 한다. (세계정세와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 4 장, 56-5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세계정세와 주님의 움직이심의 방향, 4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78년, 3권,
진리 메시지, 1장

**찬송: 799 (英) 모든 성경은 하나님
호흡 (中:579)**

- 1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 성령 감동해-
쓰여졌다네
하나님께서 사람 통하여 쓴 말씀 우리- 들어
마시네.
- 2 주의 말씀은 신성한 광선 사람들 속에-
비취주시네
참된 상태와 자신의 필요 볼 수 있도록- 어둠
비추네.
- 3 하나님의 숨 사람 생명 돼 신성한 성품- 얻게
하시네
죽은 이 살려 거듭나게 해 혼 생명 번게-하여
주시네.
- 4 하나님의 숨 사람 지혜 돼 신성한 지식-
가르치시네
주 영원한 뜻 계시하시어 최종 목적에- 이르게
하네.
- 5 하나님의 숨 사람 능력 돼 신성한 능력-
공급하시네
피곤한 이가 힘을 얻으며 주 뜻 이를 힘- 갖게
하시네.
- 6 하나님의 숨 들이마실 때 하나님 축복-
누리게 되네
영 사용하여 호흡함으로 주 모든 풍성- 누릴 수
있네.

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

The All-inclusive Christ, chs. 11-12

2/4 주일

아침의 누림

고전 14:1-5, 24-26,31-33a

- 1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더욱이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되, 특별히 신언을
하도록 하십시오.
- 2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며,
다만 자기 영 안에서 비밀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 3 그러나 신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건축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 4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건축하지만, 신언하는 사람은 교회를
건축합니다.
- 5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지만, 더 원하는 것은 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을 통역해 주어 교회가 건축되도록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신언하는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사람보다 더 큰 것입니다.
- 24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신언하고 있는데,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른 언어들을 모르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는 모든 사람에게 가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아,
- 25 그의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 26 형제님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마다, 각 사람이 찬송시를
가지고 있고,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계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고, 통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건축을 위하여
하십시오.
- 31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씩 신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배우고

모든 사람이 격려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32 신언자들의 영은 신언자들에게 복종합니다.
33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모든 교회들에서 그러하듯이,